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 참가수기

함께 나눌수 있는 사랑이 큰 힘

작은정성을 모아 적은 힘이나마 다소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참여했다. 뜻밖에 주변분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이 함께 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차에 있던 동전, 집에 쌓여둔 동전, 10원짜리부터 동전모으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뜻밖에 쉽게 많은 동전이 들쭉 쏟아져 나왔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사드리며 시작할 때마다 마지막 가득채울 때까지 미래식품 김진남 여사가 무거운 돼지저금통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다음은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다. 감사하는 뜻에서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는 모은 동전은 39만12천190원이다.

▶영북면 농민상회▶이명자▶김진남▶이지훈▶박강식▶이경자▶김근자▶김재홍▶최선자▶정택훈▶이순용▶정금순▶이희자▶김종현▶이은영▶오주석▶차남여▶이미자▶정선교▶김광남▶원애연▶박은경▶김주남▶김정미▶정확실▶강계원▶영북면 천우칼리▶일미분식.



미래식품 김진남 여사가 무거운 돼지저금통에 미지막으로 1만원을 넣어 주셨다.

포천시 예비군 중대장님들, 이태타산없이 정해진 돈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성스럽게 넣어 주시는 손길마다 감사하는 마음 잊을 수가 없다. 돈이란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느끼지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은 가는 곳마다 한 움큼씩 그냥 한 보따리를 주어도 10원짜리라 얼마되지 않는 않지만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상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같이 다음에 많이 모아준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건강이 주어지는 한 나날의 잔치에 꼭 참여하리라 다짐해 본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가족 잔치 성황

본지 포천병원 포천로타리클럽 공동주최 천주교 가산교회 외국인 근로자 250여명 참석 건강검진 등 즐거운 한때 보내

본지와 포천병원(구 포천의료원), 포천로타리클럽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외국인 가족 한가족 잔치가 지난 16일 천주교 가산교회(구 천주교 춘천교구 송우리교회 가산공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 250여명이 참석해 포천로타리클럽이 제공한 점심식사와 의료봉사, 외국인 노래자랑, 경품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관동대 의대 명지병원 의료팀이 독감에 방점종을 실시했으며, 국제로타리클럽 인터랙트 동남고학생 20여명, 봉사단체인 포사모 회원이 봉사활동에 나서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아울러 본지 윤중성 자원위원이 특별 초빙되어 통역을 실시해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오후 여흥시간에는 포천중학생들의 장고연주와 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포천병원은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신경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체열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가족 잔치에 250여명이 참석해 건강검진 및 점심식사, 노래자랑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및 검사, 약제과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고영재 원장이 직접 진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포천로타리클럽은 점심식사 250명분과 과일, 노래자랑을 위한 노래방 기기 등을 준비했다.

한편 포천병원 고영재 원장은 인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

늘 행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은 포천로타리클럽과 포천병원 관계자들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오늘 행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한빛전원교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성황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4리에 위치한 한빛전원교회(담임목사 지태영)에서 교회창립 1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창립기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주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한빛전원교회 예스터(40대로 구성) 여전도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족발, 스파게티, 녹두전, 국수, 떡볶이, 돈까스), 구두(송우리 구두나라), 의류, 악세서리, 침구류, 생활용품, 장난감, 김치 등을 판매했다.

특히 배추 김치는 교회 성도들이 직접 담겨 판매해 교회 가족들은 물론 인근 주민 500여명이 다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이익금 170만원 전액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지태영 목사는 "비록 성금이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참여하여 이웃을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일들은 결국 따뜻한 포천, 행복한 포천, 아름다운 포천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안애경 예스터회장은 "하나의 힘을 약하지만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하면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고 "내년 3회째에는 보다 다양한 품목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에서 기억에 남는 년중 행사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태영 담임목사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60명 교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분수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지난 15일 소흘읍 이동교리 한빛전원교회에서 교회창립 1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창립기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주최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1월 4일까지 신청 ... 공익활동 목적의 사업비 지원

포천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단,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하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개인이나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주체가 수행하는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 단체·사업 및 지원금액은 포천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 정도 독창성 및 창의성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정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적하게 집행할 시에는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지원신청서, 사회단체소개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양식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련 부서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031-538-2058)로 문의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민들레회 일일차집 성금 불우이웃 도와

추산초에서 400여만원 전달

민들레회(회장 임경순)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지난달 23일 일일차집을 열어 모은 성금을 지난 10일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상산) 교감실로 전달했다. 현무, 정무 형제는 모친이 집을 나간 상태이며 부친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나 직업이 없어 두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이고, 특히 현무는 신장이 안 좋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학교측에 전달된 성금은 일부 생활품을 구입하고, 현무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민들레회는 이날 추산초 학생인 손현우(5년)와 정무(3년) 형제를 돕

기 위한 3백만원을 학교측에, 암으로 투병중인 영북면 이병구 목사를 위한 1백15만300원을 부인에게 전달했다. 현무, 정무 형제는 모친이 집을 나간 상태이며 부친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나 직업이 없어 두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이고, 특히 현무는 신장이 안 좋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학교측에 전달된 성금은 일부 생활품을 구입하고, 현무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경순 회장은 "일일차집을 통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게 된 데는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 중요하지만 봉사자의 장 마련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성금인 만큼 수혜 당사자들에게 소중하게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를 운영하던 중 암을 발견, 매주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치료에 쓰이며 현재 춘천교대에 재학중인 큰 딸이 휴학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에게 전달된 성금은 암치료를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구 목사는 "일일차집을 통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게 된 데는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 중요하지만 봉사자의 장 마련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성금인 만큼 수혜 당사자들에게 소중하게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44

이동면 도평1리 이장 손완식

“도리돌 마을로 이사 오세요”

포천시 이동면 도평1리는 지난 겨울 이동면 경제 부활의 신호를 알렸던 제1회 도리돌 동장군 축제가 개최됐던 도평리의 4개 부락 중 하나로 '도리돌'이란 옛지명의 원조마을이다.

도평1리는 '도리돌', 2리는 '백운동', 3리는 '약사동'이며 4리는 도리돌에서 15년전에 분리된 마을로 도리돌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도리돌'은 북송이나누와 뽕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이며, 원래 남으로 향해있던 마을을 풍수지리상 좋지 않아 북으로 돌려놓았다는 의미가 전해진다. 하지만 북으로 향해있던 마을은 1960~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통해 모두 남향으로 다시 지어져 현재는 북을 향한 가옥은 없다.

이 마을은 영평천의 상류지역으로 47번 도로의 끝자락에 위치해 마을 앞으로 가리산과 뒤로 감투봉이 위치하고 있다.

과거 6.25 이후 경기북도청 청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북진으로 철원에 청사가 지어져 현재 계획 정지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수복탑이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도평1리의 마을 주민은 97세대 29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50%정도는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도평1리에서 1993년까지 새마을지도자와 영농회장을 지낸 후 13년째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완식(48) 이장에 마을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어보았다.

이 마을은 손완식 이장을 위시해 이국동 새마을지도자, 이성자 부녀회장, 김성태 노인회장, 상호회 등이 협력하며 마을을 일구고 있다.

손 이장은 우선 "지난해 소기의 성공을 거둔 도리돌 동장군 축제가 올해 2회를 맞이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와 축제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손 이장은 "동장군 축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된 축제로 신 47번 국도가 개통됨에 따라 이동을 널리 알려 관광 수입 증대와 나아가서는 마을의 인구유입 등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장군 축제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7일부터 본행사 개막될 예정이다.



손완식 이장 이동면 도평1리

도평1리는 연중 음력 1월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척사대회를 15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이 행사는 도평리 4개 마을 이장단과 도리돌 상호회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도리돌 상호회는 마을의 애경사와 독거노인 무의탁노인을 돕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3월 3일과 10월 중에는 해방 이후부터 지냈다는 감투봉 산신제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제물로 통째지를 사용하고, 특히 10월 산신제는 해당자를 제관으로 선발해 7일간 모든 생활을 절제한다. 2일전에는 산 아래에서 도가(술)를 만들어 준비한다. 또한 제관은 전날 약사물로 목욕하는 등 전통을 살려 진행하고 있다.

손 이장은 "산신제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지내지만, 실상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등 마을간 치료 승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산신제를 하기 전에 토신제를 지내고 있다. 손 이장은 1960년대 건축된 마을회관을 공동부지를 매입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평1리는 11월중 마을회관 건립 공청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 이장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 인구유입을 위해 토속마을, 장유(된장)마을 등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검토중이다.

"영평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입지상 무공해업체가 유치돼 주민들이 유입되길 희망한다"며 "도평1리로 이사오면 무조건 도움을 주겠다"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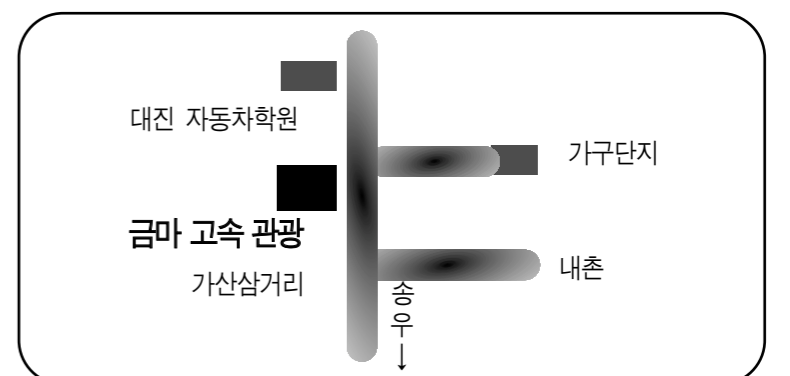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